

# 배기가스 규제 완화, K-배터리에 역풍?... 내실·투자의 시간

내연기관차 채택 확대 예상에 배터리업계, 수익성 악영향 관측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입 모아 배터리 3사, 미국에 공장 건설 투자 진행... '입지 확보' 전략



LG에너지솔루션 충북 청주시 오창 에너지플랜트 전경. /LG에너지솔루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전기차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차전지의 수요 또한 하락 가능성이 논의되는 모양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내연기관차 단종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배터리 시장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7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각) 승용차, 소형 트럭 및 중형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이 최종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초안에 비해 완화됐다. 원래 초안에서는 2032년식 승용차의 이

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2026년식 대비 56% 줄이려 했으나 최종안은 49% 낮춰졌다.

EU도 지난 14일(현지시각) 기존 안건보다 완화된 내용의 '유로 7' 배기가스 규제를 확정했다. 기존 초안에서는 디젤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80mg/km에서 2025년까지 가솔린차 수준인 60mg/km까지 줄여야 했으나 최

종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도입 시점도 3년가량 연기됐다.

배기가스 규제 완화로 완성차기업들의 내연기관차 채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언급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전기차 예상 판매량은 1675만대로 전년 대비 19.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33.5%)보다 14.4%포인트(p) 둔화된 것이다. 올해도 전기차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각 국가별, 지역별 요인으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전기차 수요는 배터리업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업계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배터리업계 관계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전기차 시장 성장성이 긍정적인 것으로 입을 모았다. 현재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 상황이 어렵긴 하나 해당 시간을 활용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유럽은 중국에 이어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은 전기차 성장성이 가장 큰 국가로 분석된다"라며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됨에 따라 업계는 북미 지역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했다.

실제로 국내 배터리업계는 미국에 공

장 설비를 하는 등 투자를 진행하며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원통형 배터리,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을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북미 시장에 집중해 입지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삼성SDI 또한 북미 지역에 추가 합작사 및 단독 공장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작공장에서는 원통형 배터리가 각형 배터리와 함께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SK온은 포드와의 합작법인 블루오벌SK를 통해 쉐넬주 글렌데일에 제1배터리공장을 건설 중이다. 해당 공장은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 내 대선 등 변수가 존재하여,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상황에 따라 북미 투자 전략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한샘 "핵심상품 경쟁력 강화로 성장 모멘텀 발현할 것"

작년 영업의 흑자 전환 했지만 당기순이익은 2년 연속 적자

"비우호적 시장환경의 장기화 대응 전략 시현, 지속가능 성장 구축"



국내 종합가구업계 1위인 한샘이 고전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구업계가 반사이익을 받았던 2021년 매출이 정점을 찍은 후 2년 연속 하락, 몸집이 줄면서다. 2022년 당시 손실을 기록했던 영업이익은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지만 당기순이익은 2년 연속 적자다.

소비 감소, 시장 경쟁 심화, 전방산업 침체 등의 영향으로 향후 실적도 안갯속이다.

2021년 당시 한샘을 인수한 사모펀드(PEF) IMM프라이빗어쿼티(IMM PE)와 지난해 8월부터 한샘을 이끌고 있는 김유진 대표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샘은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매출 1조 9669억원, 영업이익 19억원, 당기순이익 -62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도 -217억원에서 1년만에 흑자로 돌아섰지만 이익폭은 크지 않았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에도 -713억원을 기록, 2년 연속 적자 상태다. 매출액은 2021년 당시 2조 2312억원으로 고점을 찍은 후 2022년(2조 9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줄었다.

한샘은 2017년 당시 2조 625억원으로 '2조 매출'을 처음 기록한 바 있다.

한샘은 2022년 4월 중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2026년엔 전체 매출을 4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021년 당시 약 9000억원 수준에 그쳤던 홈리모델링 사업부문을 2026년까지 2배 성장을 목표로 하는 등 공격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다.

그러나 '리하우스'로 대표되는 홈리

모델링 사업은 지난해 590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매출이 하락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줄면서 리모델링 수요도 위축됐기 때문이다. 홈퍼니싱 사업도 직전 년도에 비해 12.5% 감소한 5292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사업 부문 중에선 지난해 B2B(특판 및 자재판매)가 전년 대비 18.2% 성장한 5413억원을 기록하며 그나마 선방했다.

한샘 관계자는 "리하우스는 부엌, 바스, 수납 등 핵심 상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판매비중을 확대해 부문 리모델링 공사 수요를 공략하는 동시에 수익성 개선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홈퍼니싱의 경우 중고가 위주로 핵심 상품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고 패키지 상품 구매 유도 등을 통해 추가 성장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샘은 주택시장 침체 등 호의적이지 않은 외부 상황에서도 올해 추가 성장 모멘텀 발굴과 안정적인 이익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고수의 핵심 상품 라인업 및 경쟁력 강화 ▲시공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품질과 효율성 증대 ▲온오프라인 오픈 채널 구현 ▲구매 및 물류 효율화를 통한 원가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김유진 대표는 지난 22일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비우호적 시장환경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전 부문에 대한 구조적 혁신을 진행해왔다"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시현해 성장 모멘텀을 발현하고, 향후에도 핵심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가구업계 전체가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선두 업체인 한샘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불확실성이 여전한 올해엔 실적이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 시절 반사이익으로 2021년 7월 당시 15만원 근처까지 갔던 한샘 주가는 현재 4만8000원대까지 하락한 상태다. /김승호 기자 bada@

## 포스코인터-이노백 등 5개팀, 동반성장 우수모델 선정

중기부 '윈윈 아너스' 기념패 수여

포스코인터내셔널-이노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복을만드는사람들, 롯데홈쇼핑-위니스트, 한국광해광업공단-넥스트온, 인천항만공사-넥스트이엔엠·씨케이유가 대기업(공공기관)·협력사간 '신 동반성장 우수모델'에 뽑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기 윈윈 아너스 기념패 수여식'을 열고 '윈윈 아너스' 사례로 선정된 대기업·공공기관과 대표 협력 중소기업에 기념패를 수여했다.

'윈윈 아너스'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일방적·시혜적으로 진행되는 상생활동을 넘어 중소기업 등과 윈윈으로 서로 이익을 얻는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활동에 대해 중기부가 선정한 우수 사례다.

선정 기업이나 기관에게는 동반성장 평가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2년 면제, 동반성장 관련 정부포상 우대, 기념패 수여 등 다양한 혜택이 돌아간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이노백은 바이오 분야 신시장 진출, 해외 판로 개척에서 서로 힘을 모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억원의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을 통해 이노백과 해외

공동마케팅을 진행하고, 베트남무역법인을 활용해 수출관련 베트남 현지 이슈를 대응했다.

이노백은 베트남 시장에 판매 가능한 돼지 백신 제품을 개발, 생산해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품목허가를 취득했다.

이를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회사 최초로 백신의약품을 수출하는 성과를 얻었고, 이노백은 베트남의 '나베코'사와 지난해 7월 4만8500만 달러 규모의 초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첫 해외 판로 개척에 성공했다.

aT와 복을만드는사람들은 우리쌀로 만든 냉동감밥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김승호 기자

## 반도체 수출 증가에 기업 체감경기 '반등'

한은, 이달 BSI 69로 1p 상승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3개월만에 상승했다.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면서 전자·영상·통신장비 관련 대기업들의 제조업 현황 실적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체 산업 업황실적 BSI는 69로 전월보다 1p 상승하며 3개월 만에 반등했다.

BSI는 기업의 경기 인식을 조사한 지표다. 100을 웃돌면 업황이 좋다고 응답한 기업이, 100을 밑돌면 업황이 나쁘다고 답한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달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1p 오른 71로 집계됐다.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감소 및 중국발 철강 공급 과잉으로 제품가격이 하락하면서 1차 금속이 9p 내렸지만,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은 업황개선으로 전자·영상·통신장비가 14p 올랐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중심으로 수주가 늘어나며 기타 기계·장비도 3p 상승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전월보다 3p 오른 77을, 중소기업은 전월과 동일한 65로 집계됐다. 기업 형태별로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은 나란히 2p씩 오르면서 각각 75, 70을 기록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